

#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을 중심으로

남 원 진\*

- I. 서론
- II. 근접성의 원리에 따른 동심원 구조: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
- III. ‘고급문화상품’과 ‘정치선전물’:  
남북의 정전집, 문화정치적 기획
- IV. 결론

## 국문요약

우리는 북조선이 ‘가장 격리되고 불가사의한 국가’나 ‘비이성적인 국가’라고 상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나 수수께끼 같은 존재도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었다. 또한 북조선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미디어에서 배포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 ‘실물’을 갖고 북조선, 또는 북조선 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작가인 리기영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지만, 이광수 등과 같은 ‘부르주아문학’ 작가로 분류됐던 많은 작가들도 복원됐다. 이 선집의 재창조와 전유 작업에서는 ‘계몽기 문학’에서 ‘1940년대 전반기 문학’까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재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등이 ‘창작’한 것으로 호명된 ‘혁명가요’들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이는 ‘민족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항일혁명문학’을 핵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부르주아문학’을 서열화하고자 한 ‘주체문학론’의 자장에서, 조선문학의 지형도를 재구성 또는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이 선집은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말해진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근접성의 원리를 따른 동심원 구조를 가진 기획이다.(항일혁명문학 - 프롤레타리아문학 -

부르주아문학) 또한 이 선집은 역사와 문학의 상호성을 드러낸 강력한 증표이다. 이는 북조선의 역사와 문학이 빚어낸 강력한 정치적 욕망 또는 열망을 표출한 증좌이다. 따라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이 주체문예론의 관점에서, 각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재배치한 문화정치적 기획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남한의 ‘현대문학전집’이 자본주의 체제의 ‘고급문화상품’이듯,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정치선전물’이다. 이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전집을 재구성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욕망이 발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문학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북조선 문학 연구는 남북 문학이라는 타자의 시선을 넘어선 새로운 방향성 또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여기서도 주체의 주관성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아우르고 만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주제어:** ‘현대조선문학선집’ 정전, 정전화, 북조선식 정전, 문화정치적 기획

\*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 I. 서론

북한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격리되고 불가사의한 곳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그 나라의 권력집단이 바깥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사회를 격리시키고 주민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지도층이 2천4백만 주민들에게 줄곧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실제로 북한 정치체제에는 미스터리가 없다. 북한이란 국가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sup>1</sup>

북조선은 어떤 국가일까?<sup>2</sup> 아마도, 우리는 북조선이 ‘가장 격리되고 불가사의한 국가’나 ‘비이성적인 국가’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북조선의 지배권력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사회를 격리시키고 인민들이 다른 사람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흔히 미디어에서 무한반복하듯, 북조선이 예측불가능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범하는 집단으로 인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도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었다. 또한 북조선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디어에서 배포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갖고 북조선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sup>3</sup> 또한 북조선 문학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sup>1</sup>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p. 9.

<sup>2</sup> 이 글에서 널리 사용하는 ‘북한’ 대신 ‘북조선’이라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라는 용어는 북쪽에서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이란 용어는 ‘북한’을 타자화함으로써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또는 주체의 척도에 맞게 타자를 재단하는 남한 중심주의의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조선’이라 쓰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용어 속에 잠재한 남한 중심주의적 시각이나 이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 것이다. 남원진, “북조선 문학의 연구와 자료의 현황,”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pp. 57~59.

<sup>3</sup> 북조선이란 나라를 언급할 때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무엇을 상상할까?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문구들, ‘미친 국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정권’, ‘벼랑 끝 핵전술’ 등을 비롯한 관형구들이 북조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지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이성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상식을 벗어나 있으며, 심지어 물리학의 법칙까지도 거스르는 국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형구들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가 아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반증일 것이다. 북조선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정치화 화석이며, 오래 전에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다. 또한 북조선은 분단과 함께 ‘어떤 이미지의 형식’을 점차로 갖게 되는데, 가령 뉴스 영화나 TV 스크린에서 ‘발을 뻗쳐 걷는 기계화된 신체의 이미지’와 같은 ‘현재의 위협적인 이미지’, 즉 ‘검열이 강화된 국가주도 매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위협적인 이미지의 반복 자체가 북조선으로부터 ‘지리적 접근성과 시간적 운동’을 빼앗고 있다. A. Lankov, 김수빈 역, 『리얼 노스 코리아』 (서울: 개마고원, 2013), p. 13; Theodore Hughes,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서울: 소명출판, 2013), p. 146.

북한 당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매체는 물론이고 과거의 북한 공식 매체로부터도 격리시키고자 노력을 다했다. 북한의 모든 정기간행물과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다룬 상당수의 발행물들이 주기적으로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정기간행물의 이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신문의 경우에는 10~15년 이전의 모든 신문들이 일반에 비공개 처리되었다. 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를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북한 정부는 1940년대에 위대한 소련군과 스탈린 동지에게 바치곤 했던 찬사를 주민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1960년대 초 북한의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소련식 수정주의’를 비판한 장광설이 알려지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sup>4</sup>

북조선의 대표 작가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손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위에서 보듯, 남북의 연구자들이 북조선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과 발행물들을 손쉽게 접근할 방법은 없다. 북조선에서도 그러하듯, 남한에서도 북조선 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북조선에서 생산된 저작들은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국내외에 산재한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북조선 문학 연구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무한반복되는 특징까지도 있다. 이런 북조선 문학 연구에 따른 고충 때문에, 필자는 매우 번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려고도 한다.<sup>5</sup>

이 글의 중심과제인 북조선 정전 연구도 북조선 문학의 실상을,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객관적 ‘실물’을 통해서 발굴하는 작업이다. 이는 북조선의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처럼, 북조선 문학계에서 각 시기별로 행해진 조선문학의 재창조 작업을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북조선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정전화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북조선의 모든 출판이 엄격한 검열체계 아래 국가가 선점 또는 전유하는 상황이기에 그러하다.<sup>6</sup>

<sup>4</sup> A. Lankov, 위의 책, pp. 78~79.

<sup>5</sup> 남원진, “북조선 소설 연구를 위한 제언 - 원본 수집과 공동 연구의 필요성,” 『돈암어문학』, 제26집 (2013), pp. 39~41.

<sup>6</sup> 조선작가동맹 작가였던 최진이의 증언에 따르면, 북조선의 검열체계는 다음과 같다. 북조선에서는 ‘작가동맹 심의(국가심의)와 출판검열’이 있다. 조선작가동맹 심의는 심의요강에 따라 한다. 심의요강은 수십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조항은 교시, 말쑤를 적을 때 존칭사,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라는 문장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존함’ 할자는 일반 활자보다 큰 활자로 인쇄해야 한다 등이다. 일반 요강으로써는 “문학작품에서 삼각련애를 다루지 말라”, “교원들의 애정을 소설에서 묘사하지 말라”,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문학작품에서 형상하지 말라” 등이다. 분과 내 작가들은 창작한 작품을 국가 심의에서 먼저 통과해야 한다. 발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은 조선문학에 대한 회고와 선별을 공식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특히 식민지 시대, 출판 자본의 영향 아래 생성된 문학의 시장적 가치에 따라 ‘조선문학전집’이 발간되었던 것에 비해,<sup>7</sup> 북조선의 이 선집은 국가 권력의 지배 아래 문학의 정치적 가치에 따라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출판되었다. 이런 선집의 호출은 각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착시키는 재해석의 작업인데, 이는 조선문학을 새롭게 배치해내는 문화정치적 기획인 셈이다.<sup>8</sup>

<표 1> ‘현대조선문학선집’

1950~19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1~16)』	1957~1961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		
리인직(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출판(추정)
‘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		
한설야(외)	『현대조선문학선집(54~79)』	2011~2016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62~64)』	미출판(추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72)』	미출판(추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77~78)』	미출판(추정)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우른 북조선 작품집,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은 단편적인 언급이나 부분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다. 즉, 이에 대한 검토는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나 김성수 등의 단편적인 언급이나 남원진의 ‘현대

표하려는 원고에 심의실 인증 도장을 받은 후 출판사 편집부에 투고해야 한다. 출판 검열의 경우, 출판사(담당편집원)는 일체 출판물을 발행하기 전에 모든 원고에 대해 출판검열을 받아야 한다. 출판검열의 주목표는 출판하려는 원고의 내용이나 표현에 김일성, 김정일 권위와 사회주의 제도에 손상을 주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골라내는 것이다. 출판검열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안목이 더 우선시된다. 출판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한 원고는 절대로 출판될 수 없다. 최진이, “작가와 조선작가동맹,” 『입진강』, 9호 (2010), p. 163; 최진이, “북한의 작가와 ‘조선작가동맹,’” 이상숙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3), pp. 502~503.

<sup>7</sup> 1938년 조선일보출판부는 전 7권으로 구성된 ‘현대조선문학전집’을 4×6판 호화 양장본으로 출판했다. 이 ‘현대조선문학전집’은 시가집 1권, 단편소설집 3권, 수필기행집 1권, 평문집 1권, 희곡집 1권으로 편집된, 문학장르를 중심으로 구분한 전집이었다. 이 전집은 작가별 기획으로 편찬하지 않고 장르별로 편집하여 조선문학의 전체적 지형도를 담아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며, ‘조선문단 총집필, 20년래 조선문학의 총수확’이라는 찬사가 덧붙인 식민지 최대의 문학전집이었다.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2012), p. 216.

<sup>8</sup> 위의 책, pp. 241~246.

조선문학선집’을 점검한 연구 서설과 유문선의 성과물인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북조선의 문학사 인식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 등이 있다.<sup>9</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현대조선문학선집’과 같은 객관적 텍스트를 통해서 북조선의 정전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유일한 조선문학 정전집의 특권을 부여받은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현재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은 700여 명의 작가와 5,00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80여 권 규모의 작품집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된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은 각 시기별 조선문학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재배치한 정전집이다. 이 선집의 조선문학에 대한 선별 작업은 북조선 ‘문예총’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리기영, 한설야 등을 중심으로 ‘현대조선문학’을 정리했다. 하지만, 해방기 핵심적인 이론분자였던 안막, 안함광 등의 여러 평론가들이 배제됐고, 1950년대 대표 작가로 호출된 윤세중, 황건 등의 많은 작가들이 미정리 상태로 남았다. 또한 이 선집은 작가 선집도 포함하여, 각 장르를 중심으로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린 문화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북조선 문학계의 복잡한 논쟁 과정에서 조선문학의 정리 작업은 중단됐다.<sup>10</sup> 결국 1950~60년대 출판된 이 선집은 미완성본인 셈이다.

정전 형성의 역사는 일종의 음모, 즉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나, 그 작품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지 않는 자들의 작품을 암암리에 혹은 고의적으로 억압 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날 것이다.<sup>11</sup>

북조선의 정전은 무엇일까? 먼저, 정전(Canon)이란 첫째, 공적인 가치나 규범을 창출하고 둘째, 정통과 이단의 합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셋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문헌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에서 정전은 확립된 또

<sup>9</sup> 大村益夫,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한글문학』, 2호 (1990); 김성수, “북한학계의 우리문학사 연구 개관,”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 『현대조선문학선집』(1987~ )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2007);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반교어문연구』, 제41집 (2015);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통일인문학』, 제67집 (2016).

<sup>10</sup>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pp. 176~183;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pp. 112~133.

<sup>11</sup> John Guillory, 박찬부 역, “정전(正典),” F. Lentricchia, T. McLaughlin 편, 정정호 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서울: 한신문화사, 1994), pp. 304~305.

는 유력한 제도나 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문헌을 말한다.<sup>12</sup> 그러면 북조선의 대표적 정전집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총 집대성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57~1961)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 많이 발굴보충된’ 문학작품들을 수록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87~2016)일 것이다.<sup>13</sup> 이 선집은 북조선의 대표적 정전을 선별한 작품집이다.

이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에서 공적인 가치나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정전으로 호출되면서 유포된 작품집이다. 이에 따라 ‘현대조선문학선집’에 호출된 작품들은 ‘북조선식 정전’이라 할 수 있다. 즉, ‘북조선식 판본’은 국가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북조선식 정전이며, 아마도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이 선점하고 전유하여 유통한 정전집에 해당될 것이다. 이 선집에 호명된 작품들은 특권적 권위를 부여받는 한편, 서열화에 직면하는 역설을 맞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권위가 부여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서열화될까?

이 글의 중심대상인 1980년대 중반 이후 호출된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이 선집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sup>14</sup> 일명 ‘해방전편’에 해당하는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또한 남한의 대표적 정전집과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작가나 작품들이 호출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남북의 정전집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의 정전집의 원리는 무엇일까’를 검토하는 한편, 특권적 권위나 서열화,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다만 방대한 분량과 선집 구성의 차별성 때문에, 이 선집의 전체적인 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5</sup>

<sup>12</sup> 위의 책, pp. 303~305; Haruo Shirane, “창조된 고전: 정전 형성의 패러다임과 비평적 전망,” Haruo Shirane, 鈴木登美,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서울: 소명출판, 2002), p. 18.

<sup>13</sup> “《현대조선문학선집》,” 『문학신문』 29호, 1957년 6월 20일; 정원길, “깨끗한 량심에는 인생의 봄만 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하고있는 작가 류희정동무에 대한 이야기,” 『문학신문』 1898호, 2004년 8월 21일.

<sup>14</sup> 1950년대 중반 이후 발간된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작가 66명, 작품 902편이 실려 있고, 1980년 중반 이후 발행된 일명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작가 614명, 작품 3,834편이 수록되어 있고, 일명 ‘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54~79)』(2011~2016)에는 작가 107명, 작품 384편이 선별되어 있다. 단 작가나 작품 수는 미발행인 ‘해방전편’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과 ‘해방후편’인 ‘현대조선문학선집(62~64, 72, 77~78)’은 제외된 것이다. (북조선 『조선문학예술년감(1998)』(문학예술종합출판사(1999. 11. 30))에서 『조선문학예술년감(2014)』(문학예술출판사(2015. 9. 25))까지 도서출판 목록에서는 ‘현대조선문학선집(44), (62~64, 72, 77~78)’의 출판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sup>15</sup> 이 글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은 1950~60년대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이나 선집 구성의 차별성 때문에, 1950~60년대 선집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집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 II. 근접성의 원리에 따른 동심원 구조: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로 개화발전한 문학의 성과를 기본으로 하면서 1900년대 계몽기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편찬하게 된다.

새롭게 편찬되는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소설, 시문학뿐만아니라 희곡, 영화문학, 가극대본, 평론, 예술적산문, 아동문학 등 다양한 문학종류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는 100권 정도이다.<sup>16</sup>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유산을 길이 빛내이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 발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sup>17</sup>

주체문예이론의 일시적인 ‘해방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후반,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는 ‘1900년대 계몽기 문학’부터 ‘소설, 시문학, 희곡, 영화문학, 가극대본, 평론, 예술적 산문, 아동문학’ 등의 갈래로 구성된 ‘100권 정도’의 규모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sup>18</sup> 또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김정일의 과업 제시에 따라 편찬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이 선집의 ‘정리’나 ‘재창조’ 작업에서는 가극대본이나 영화문학은 수록되지 않았고, 또한 이 선집은 100권에 못 미치는 70여 권이 현재까지 출판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주체문예론의 ‘해방기’를 지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정치적 극한상황이나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대 중심의 상황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 발간이 탄력받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에는 어떤 작가를 호명했을까? 이 선집에는 700여 명의 작가와 4,000여 편의 작품이 호출된 방대한 규모의 작품집이다. 그리고 일명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600여 명의 작가와 3,000여 편의 작품이 선별된다.

<sup>16</sup>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제1권)을 내면서,” 리인직·반아, 『계몽기소설집(1)』(현대조선문학선집(1)) (평양: 문예출판사, 1987), p. 3.

<sup>17</sup> 정원길, “깨끗한 량심에는 인생의 봄만 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하고있는 작가 류희정동무에 대한 이야기,” 『문학신문』, 1898호, 2004년 8월 21일.

<sup>18</sup> 리인직·반아, 『계몽기소설집(1)』(현대조선문학선집(1)), p. 3.

<표 2>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

리인직, 반아(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	문예출판사	1987. 5. 10.
	계몽기소설집(1)		
	리인직, 반아		
중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3)』	문학예술출판사	2009. 7. 30.
	소설집 꽃피었던 섬		
	김소엽, 리무영, 박태원, 박화성, 석인해, 유진오, 장덕조, 조벽암, 차자명, 최명익, 최태웅, 한인택, 현경준, 현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확인)	(미출판-추정)
	?(미확인)		
	미확인		
현진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5)』	문학예술출판사	2007. 5. 15.
	장편소설 《무영탑》		
	현진건		
중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53)』	문학예술출판사	2011. 4. 25.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		
	권환, 김동석, 김사랑, 김소엽, 김영석, 김정환, 김창걸, 로자영, 리기영, 리무영, 리무영, 리용악, 리찬, 박로감, 엄홍섭, 월탄, 윤곤강, 정인택, 주요한		

위 <표 2>에서 보듯, 1987년부터 ‘현대조선문학선집’ 출판은 새롭게 진행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53)』은 ‘현대조선문학선집(1)’ 『계몽기소설집(1)』(1987)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53)’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2011)까지 출판됐다. 현재 출판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현대조선문학선집(44)’는 미출판된 것으로 짐작된다.<sup>19</sup>

여기서,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어떤 작가를 호명했을

<sup>19</sup> 북조선 『조선문학예술년감(1998)』(문학예술종합출판사(1999. 11. 30))에서 『조선문학예술년감(2014)』(문학예술출판사(2015. 9. 25))까지 도서출판 목록에서는 ‘현대조선문학선집(44)’의 출판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아직 이 선집(44)은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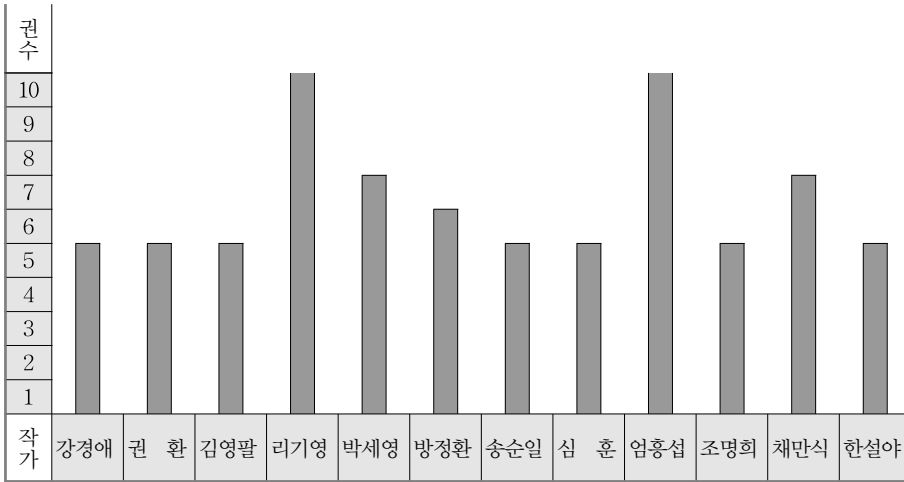


까? 이 선집에는 계몽기에서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조선문학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해방전편’은 작가 614명, 작품 3,834편이 실려 있다.<sup>20</sup>

<sup>20</sup>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작가미상, 작자미상, 구전동화, ‘항일 무장투쟁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항일혁명가요들’, ‘항일혁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등의 작가를 알 수 없는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선집에는 ‘공륙, 공륙식’은 최남선, ‘월탄’은 박종화, ‘소파’는 방정환 등의 동일인물이나 ‘박영춘’은 박영준의 오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서설에서는 하도 방대한 자료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차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 정확한 작가 수나 작품 편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수록 작가명(총 614명): 강경애, 강로규, 강반석, 강병주, 강성범, 강소천, 강순도, 강승한, 강영균, 강의훈, 강훈, 걱정없을이, 김무산초인, 계용묵, 고두동, 고성, 고은, 고장환, 고재흥, 고한승, 공재명, 광로열, 광로열, 구연학, 권구현, 권덕규, 권연기, 권오순, 권은상, 권태웅, 권파, 권환, 김내, 김계담, 김광균, 김광섭, 김광주, 김교익, 김교제, 김규은, 김기림, 김남주, 김단정, 김달진, 김대봉, 김대창, 김도인, 김동길, 김동리, 김동명, 김동석, 김동인, 김동환, 김두용, 김두현, 김탁환, 김담인, 김담운, 김말봉, 김명순, 김명호, 김문집, 김병호, 김복진, 김봉인, 김복원, 김사량, 김삼술, 김삼근, 김삼덕, 김상용, 김상정, 김상훈, 김선량, 김선익, 김성도, 김성복, 김소엽, 김소월, 김소저, 김송, 김수산, 김승구, 김시훈, 김어수, 김억, 김영걸, 김영길, 김영석, 김영수, 김영일, 김영팔, 김영환, 김오남, 김용호, 김용희, 김우진, 김우철, 김운정, 김원룡, 김유정, 김유한, 김인걸, 김인식, 김일성, 김자겸, 김자혜, 김정거, 김정숙, 김정진, 김정환, 김정환, 김조규, 김종기, 김종하, 김중환, 김주원, 김죽사, 김중곤, 김진세, 김진수, 김창술, 김창길, 김창신, 김창주, 김천규, 김철영, 김춘강, 김태오, 김한성, 김한태, 김해강, 김형원(김석술), 김형직, 김호영, 김흥연, 꽃동산, 남강생, 남궁랑, 남궁만, 남궁벽, 남궁인, 남석중, 남양초, 남응손, 녀성, 녀신, 늘샘, 도봉생, 도진호, 돌이, 동초생, 라도향, 락랑, 량가빈, 량근식, 량고봉, 량명, 량우정, 량주동, 량근수, 량상섭, 량운상, 로랑근, 로상현, 로자영, 로직이, 로천명, 로초생, 로해룡, 류금산, 류도순, 류성호, 류연옥, 류영, 류완희, 류운향, 류의탁, 류일천, 류재성, 류재영, 류재형, 류종석, 류종원, 류지영, 류창선, 류춘섭, 류치진, 류치환, 리강흡, 리경로, 리계원, 리고려, 리고산, 리고손, 리광수, 리구월, 리구조, 리귀조, 리근영, 리기영, 리대용, 리동규, 리동우, 리룡섭, 리륙사, 리명식, 리무극, 리무영, 리병기, 리병옥, 리병운, 리병화, 리병성, 리복명, 리상대, 리상준, 리상춘, 리상협, 리상화, 리서향, 리석훈, 리선섭, 리선희, 리설주, 리성태, 리성홍, 리어수, 리영근, 리영무, 리영철, 리용악, 리용완, 리원수, 리원우, 리은상, 리은희, 리익상, 리인직, 리일, 리일래, 리장희, 리재환, 리적효, 리정규, 리정호, 리종기, 리종명, 리종정, 리주홍, 리중원, 리찬, 리필균, 리해월, 리해조, 리향, 리향파, 리현구, 리혜숙, 리혜영, 리호, 리효석, 리홍, 리희승, 립린, 립마리아, 립춘길, 립학수, 마가산, 마니산인, 마춘서, 마하산, 마해송, 맹주천, 목고경, 목일신, 문병찬, 문원태, 문일평, 민병균, 민병휘, 민봉호, 민태원, 박경식, 박경중, 박계홍, 박고경, 박기림, 박기섭, 박길수, 박길주, 박남수, 박달성, 박두언, 박두진, 박로갑, 박로아, 박로춘, 박룡철, 박맹, 박명옥, 박문서, 박법숙, 박병도, 박봉준, 박산운, 박서민, 박석정, 박세영, 박세철, 박세혁, 박수봉, 박승국, 박승극, 박아지, 박약서아, 박영순, 박영중, 박영준(박영춘), 박영하, 박영호, 박유중, 박운용, 박을송, 박이양, 박인범, 박인호, 박재관, 박재륜, 박정창, 박제찬, 박종식, 박종화(월탄), 박찬희, 박태원, 박팔양, 박화성, 반아, 방응삼, 방인근, 방인희, 방정환(소파), 배달자, 배선권, 백기만, 백락천인, 백석, 백신애, 백원, 백철, 백파, 변영노, 변재연, 변중호, 변혁, 복주생, 복약산인, 복원초인, 비봉산인, 스승생, 사몽, 서덕출, 서정봉, 서정주, 서창제, 서탑황생, 석인애, 석전아, 석포영, 성경린, 성석훈, 성암생, 소석생, 소인, 소화, 손기문, 손진태, 손풍산, 송기화, 송선일, 송순일, 송양파, 송영, 송완순, 송창일, 수봉, 수용, 숙월생, 승용순, 승효단, 신경순, 신태, 신석정, 신석초, 신진순, 신채호, 신한경, 심규섭, 심홍, 심훈, 아나산인, 안국선, 안례부, 안통만, 안병두, 안영균, 안영수, 안준식, 안함광, 안희남, 약월, 양운한, 양재웅, 어적산인, 엄홍섭, 연성희, 염주용, 영춘, 오상순, 오시영, 오영자, 오일도, 오장환, 윤림생, 월양, 월파생, 유민, 유진오, 윤곤강, 윤극영, 윤기정, 윤동주, 윤량모, 윤복진, 윤석중, 윤세중, 윤수봉, 윤영희, 윤적도, 윤태영, 윤태용, 읍파맹, 일몽, 임수득, 임영

<표 3>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작가 수록 권수 빈도



이런 방대한 규모로 재정리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은 리기영, 엄홍섭, 박세영, 채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문학을 재구성했다. 리기영이나 박세영<sup>21</sup>은 카프의 대표 작가이며 북조선 ‘문예총’을 이끈 핵심적 작가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sup>22</sup> 엄홍섭의 작품이 풍부하게 재배치된 것이나 채만식의 여러 작품들이 호명된 것은 이채로운 사실이다.<sup>23</sup> 여기서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의 리기영과 엄홍섭의 호출은 리기영의 작품이 축소된 반면 엄홍섭 작품은 확대됐다.

빈, 임원호, 임정재, 임혜라, 자하산인, 장덕조, 장만영, 장선명, 장세권, 장수산인, 장수철, 장인균, 장일익, 장정심, 적포탄, 전경택, 전고한, 전광수, 전당, 전맹, 전무길, 전식, 전영택, 전일순, 전장춘, 전춘파, 전홍립, 정경목, 정규창, 정기주, 정대위, 정동, 정로풍, 정룡산, 정상규, 정순철, 정열모, 정인보, 정인섭, 정인택, 정적아, 정지용, 정청산, 정태선, 정태이, 정형원, 정호승, 정홍필, 조남영, 조동건, 조동진, 조두성, 조령출, 조명희, 조벽암, 조세립, 조연현, 조운, 조일재, 조재호, 조정현, 조종현, 조지훈, 조풍연, 주강산, 주락양, 주수원, 주영섭, 주요섭, 주요한, 주은섭, 주향두, 지봉문, 진우춘, 진장섭, 진학보, 차남성, 차자명, 차칠선, 채만식, 채선엽, 천청송, 철염, 청천강인, 초동, 초로, 최경화, 최남선(공록, 공록식), 최득건, 최련실, 최룡봉, 최명익, 최병한, 최병화, 최봉록, 최서해, 최수복, 최순애, 최승일, 최신구, 최연택, 최영구, 최영기, 최옥란, 최이순, 최인준, 최인화, 최접봉, 최정희, 최종범, 최찬식, 최청곡, 최태웅, 최화숙, 추적양, 춘사생, 토운, 편운, 편운생, 포뢰, 포영생, 표월강, 피천득, 한날, 한도렬, 한룡운, 한백근, 한별, 한봉천, 한사배, 한설야, 한식, 한인숙, 한인택, 한적선, 한정동, 한죽송, 한충, 한효, 한희구, 함대훈, 함세덕, 함효영, 해달봉, 허길옥, 허리복, 허문일, 허보, 허삼봉, 허수만, 현경준, 현덕, 현상운, 현성, 현태덕, 현진진, 현철, 혜원, 홍구, 홍단파, 홍사용, 홍순옥, 홍은성, 홍일오, 홍종린, 홍종인, 홍태양, 황락진, 황석원, 황철암.

<sup>21</sup>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5)』(1960)에 박세영의 시 38편, 아동문학 14편, 수필 2편 등의, 총 54편이 실린데 반해,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시 65편, 아동문학 17편, 수필 1편 등의, 총 83편이 수록됐다. 또한 200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54~79)』(2011~2016)에도 시 9편, 아동문학 22편 등의, 총 31편이 실렸고,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선집은 작가의 대표작을 선별하려는 측면이 강했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집은 북조선식 조선문학의 대표작을 재배치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런데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작가 선집 5권, 장편소설 10권 등의 작가별 선별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소설집 16권, 시가집 8권, 희곡선 3권, 수필집 2권, 평론집 1권, 아동문학집 5권, 종합작품집 2권 등의, 총 52권으로 조선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특히 이 선집은 작가 선집도 포함하여 각 시기별로 각 장르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리는, 작가 600여 명의 작품 3,800여 편이 실린 방대한 북조선식 기획이었다.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작가인 리기영, 엄홍섭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지만,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서 삭제된 이광수, 최남선 등과 같은 ‘부르주아문학’ 작가로 분류됐던 많은 작가들도 복원했다.<sup>25</sup>(여전히 이상과 같은 모더니즘 작가는 배제됐다.) 이 선집의 재창조와 전유 작업에서는 ‘계몽기 문학’에서 ‘1940년대 전반기 문학’까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재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등이 창작한

<표 4>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2)』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57. 12. 20.
	시집 「각서」, 「감국보(甘菊譜)」, 「강남의 봄」, 「그림구나, 내 고향」, 「나에게 대답하라」, 「누나」, 「도시를 향하여」, 「떠나는 노래」, 「또다시 가는가」, 「로화」, 「바다의 마음」, 「반동기(反動期)」, 「밤마다 오는 사람」, 「봄」, 「봄피리」, 「북해와 경산」, 「산골의 공장」, 「산제비」, 「신혼의 어머니」, 「야습」, 「양자강」, 「오후의 마천령」, 「우리들의 四〇년」, 「은폭동」, 「잃어진 봄」, 「자연과 인생」, 「전원의 가을」, 「젊은 웅변가」, 「치녀동」, 「천변의 병원」, 「최후에 온 소식」, 「침향강」, 「타작」, 「포구 소묘」, 「하랄의 용사」, 「해방되어 가는 처녀지」, 「해빈의 처녀」, 「화운보로 가린 二층」		
	『현대조선문학선집(9)』		
	수필집 「가정 교사」, 「폐원의 시단」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60. 5. 20.
	현대조선문학선집(10)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60. 3. 15.
	아동 문학 집 「갈매기」, 「강가에서」, 「고향의 봄」, 「교문을 단던 날」, 「구름을 모으는 마음」, 「대장간」, 「동물원의 꽃」, 「소(牛) 병정」, 「붉은 개미」, 「순남의 말」, 「五월 행진곡」, 「제비」, 「풀을 베다가」, 「할아버지와 현 시계」		

것으로 호명된 ‘혁명가요’들도 수록됐다. 그런데 이 선집에서는 왜 혁명가요들이 호명되고, 중심에 배치됐을까?

다음은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2000년대 판본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이다.

1. 우리들은 조선인민혁명군  
혁명 위해 싸우는 붉은 전투원

<표 5>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15)』 1920년대시선(3) 「4등선객」, 「각서」, 「누나」, 「떠나는 노래」, 「바다의 녀인」, 「바다의 마음」, 「봄」, 「봄피리」, 「북해와 경산」, 「아슴」, 「양자강」, 「잃어진 봄」, 「치녀동」, 「타작」, 「포구 소묘」, 「해방되어가는 치녀지」, 「해빈의 처녀」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12. 30.
	『현대조선문학선집(18)』 1920년대 아동문학집(1) 「가을들」, 「강가에서」, 「고향의 봄」, 「구름을 모으는 마음」, 「대장간」, 「손님의 말」, 「조리풀과 강아지」, 「풀을 베다가」, 「할아버지와 현시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7. 30.
	『현대조선문학선집(20)』 1920년대 아동문학집(2) 「소병정」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2. 20.
	현대조선문학선집(27)』 1930년대시선(2) 「갑곡보」, 「강남의 봄」, 「강물을 따라」, 「귀추도」, 「그림구나 내 고향」, 「길손의 노래」, 「나 사는 곳」, 「나에게 대답하러」, 「노래」, 「다리」, 「다시금 여가를…」, 「도시를 향하여」, 「또다시 가는가」, 「로회」, 「막치」, 「모흔」, 「반동기」, 「밤마다 오는 사람」, 「밤의 노래」, 「북방의 길」, 「붉은 신」, 「비둘기 내 어깨에 앉으라」, 「산골의 공장」, 「산제비」, 「산촌의 어머니」, 「성모하러 가는 길」, 「영」, 「오후의 마천령」, 「우기」, 「우리들의 40년」, 「은폭동」, 「자연과 인생」, 「자화상」, 「장미철」, 「전원의 가을」, 「절정의 노래」, 「젊은 웅변가」, 「종소리」, 「찬변의 병원 관동무를 찾아」, 「초봄의 노래」, 「최후에 온 소식」, 「참향길」, 「탄식하는 녀인」, 「하말의 용사」, 「향토망경시」, 「화문보로 가린 2층」, 「황무지」, 「황혼」	문학예술출판사	2004. 1. 5.
	『현대조선문학선집(37)』 《1930년대 수필집》 「가정교사」	문학예술출판사	2006. 9. 25.
	『현대조선문학선집(39)』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 「교문을 단던 날」, 「붉은개미」	문학예술출판사	2005. 4. 12.
	『현대조선문학선집(40)』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2) 「5월행진곡」, 「내 지계」, 「눈팔매」, 「새해에 보내는 송가」, 「제비」	문학예술출판사	2005. 6. 25.

우리들의 투쟁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

<표 6>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54~74)』(2011~2015))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55)』 1940년대시선(해방후편)	문학예술 출판사	2011. 8. 25.
	「그치라 요녀의 소리」, 「나도 새사람 되리」, 「위원회에 가는 길」, 「진리」, 「해별에서 살리라」		
	『현대조선문학선집(57)』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박세영	「꽃피는 조선」, 「우리는 소년단원」, 「무궁화」, 「비둘기」, 「팽이」, 「줄넘기노래」, 「연」, 「인민의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바람」, 「누가 먼저 오나요」, 「즐거운 아침」, 「탁아소 가는 내 동생」, 「갈매기」, 「사랑의 집」, 「여름바다로」, 「등대불이 반짝」, 「공장」, 「기발도 따라가지요」, 「산에산에 나무를 심어」, 「고개길에서」, 「등불이 한쌍」	문학예술 출판사	2012. 4. 5.
	『현대조선문학선집(61)』 《1950년대시선》(1)		
	「나팔수」, 「불탄 고향을 지나며」, 「수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네」, 「숲속의 사수임명식」		

<sup>22</sup> 박세영은 1946년 10월 13~14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부장, 북조선문학동맹 중앙상임위원, 1953년 9월 26~27일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시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위원, 1956년 10월 14~16일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시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 편집위원, 1961년 3월 2~3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으로 임명됐다. 해방 후 북조선에서 활동했던 기간 박세영은 『진리』, 『승리의 나팔』, 『밀림의 력사』 등의 여러 시집을 남겼다.

또한 리기영은 1946년 3월 25~27일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예술총련맹 상임위원장, 1946년 4월 조소 문화협회 조직 개편 때 조소문화협회 위원장, 1946년 10월 13~14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 북조선문학동맹 위원장, 북조선문학동맹 중앙상임위원, 1951년 3월 10~11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문학동맹 위원, 1953년 9월 26~27일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소설분과위원회 위원, 1956년 10월 14~16일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중앙 상무위원회 위원, 1961년 3월 2~3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 1967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해방 후 북조선에서 활동했던 기간 리기영은 「개벽」, 『땅』, 『두만강』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sup>23</sup>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5)』(1960)에 채만식의 단편소설 1편(「양탈」)이 실린데 반해,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2편, 중편소설 2편, 장편소설 1편, 희곡 4편, 수필 3편, 동화 1편 등의, 총 13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은중섭은 채만식의 창작이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을 고수”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을 지적했다. 이 선집에서 채만식의 호출은 ‘진보적, 애국적 성격’이라는 북조선식 재구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은중섭, “소설집 《천하태평춘》에 대하여,” 채만식, 『천하태평춘』(현대조선문학선집(52))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p. 3.)

8. 야수같이 악착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일제놈의 파썸적인 통치제도를  
 한결같이 일어 나서 때려 부시지<sup>26</sup>

다음은 ‘작자 미상’의 1960년대 판본 ‘혁명가요’ 「조선 인민 혁명군」이다.

우리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공산당 령도 받는 붉은 전투원  
 우리들의 투쟁 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

<표 7> 채만식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채만식	『현대조선문학선집(17)』 1920년대희곡선 「농촌스케취, 「락일, 「밥」	문학예술종합 출판사	1995. 3. 5.
	현대조선문학선집(33) 소설집 철도교차점 「소망, 「치숙(어리석은 아저씨)」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30.
	현대조선문학선집(37) 《1980년대 수필집》 「문학인의 축간, 「어름풍경, 「인테리」	문학예술 출판사	2006. 9. 25.
	『현대조선문학선집(41)』 《1980년대희곡선》(1) 「제향날」	문학예술 출판사	2008. 4. 25.
	『현대조선문학선집(48)』 해방전동화집 「왕치와 소새와 개미」	문학예술 출판사	2010. 7. 30.
	『현대조선문학선집(51)』 소설집 《비오는 길》 「명일(래일)」	문학예술 출판사	2010. 6. 5.
	『현대조선문학선집(52)』 소설집《천하태평춘》 『천하태평춘』, 「동화」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15.

<sup>24</sup> 이 선집에는 리기영의 단편소설 20편, 장편소설 3편, 희곡 2편, 수필 9편, 평론 4편 등의 총 38편의 작품이 실렸고, 엄홍섭의 시 4편, 단편소설 7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3편, 수필 3편, 평론 3편 등의 총 22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특히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1980년대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표 8> '현대조선문학선집' 수록 리기영의 작품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1	『『적막한 예원』의 일절을 읽고	평론	『『적막한 예원』의 일절을 읽고	평론
2	『『집단 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수필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수필
3	『『하르레트』의 명령	수필	『『햄릿』의 명령	수필
4	『『혁명가의 안해』와 리 광수	평론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	평론
5	『가난한 사람들』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	단편소설
6	『공간(空間)』	단편소설	×	
7	『귀농(歸農)』	단편소설	『귀농』	단편소설
8	『금강 비경행』	수필	×	
9	×		『김군과 나와 그의 안해』	소설
10	『농부 정 도령』	단편소설	『농부 정도룡』	단편소설
11	『돈』	단편소설	『돈』	단편소설
12	『동경하는 녀주인공』	수필		
13	『락동강』	수필	×	
14	『먼저 자부심을 가지라』	수필		
15	『묘목』	단편소설		
16	『묘양자(猫養子)』	단편소설	『묘양자』	단편소설
17	『문예적 시감 수제』	평론	『문예적시감수제』	평론
18	『민촌』	단편소설	『민촌』	단편소설
19	『밀머느리』	단편소설	『밀머느리』	단편소설
20	『박 선생』	단편소설		
21	『박 승호』	단편소설	×	
22	×		『봉황산』	소설
23	『비』	단편소설	『비』	단편소설
24	『비평과 작품에 대하여』	평론	×	
25	『산문의 정신과 사상』	수필		
26	『새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수필	『새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수필
27	『셋방 一〇년』	수필	×	
28	『소부(少婦)』	단편소설	『소부』	단편소설
29	『송 영군의 인상과 작품』	수필	×	
30	『숙제』	수필	『숙제』	수필
31	『실진(失真)』	단편소설	『실진』	단편소설
32	『실패한 처녀 장편』	수필	『실패한 처녀장편』	수필
33	『양개』	단편소설	『양개』	단편소설
34	『예술 탐광기』	수필	『예술탐광기』	수필
35	×		『옛날의 가을』	수필
36	『오빠의 비밀 편지』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	단편소설
37	『五월의 수상』	수필	×	
38	『왜가리촌』	단편소설	『왜가리촌』	단편소설
39	『외교원과 전도 부인』	단편소설	『외교원과 전도부인』	단편소설
40	『원보(일명 서울)』	단편소설	『원보(일명 서울)』	단편소설

일제늬과 주구들의 일체 법령을  
한결같이 일어 나서 반대해 가지<sup>27</sup>

위에 보듯, 이 가요는 ‘일제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된다. 그런데, 『현대조선문학선집(11)』(1960)에서 창작자가 없는 ‘혁명가요’로 제시된 「조선 인민 혁명군」은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2002)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호명되고 일정 부분 개작되어 재배치된다. 김일성이 ‘친필한’ 이런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은 ‘혁명적 시가문학의 시원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과 예술

41	「원 치서」	단편소설	「원치서」	단편소설
42	×		「월희(그들의 자매)」	희곡
43	「인간적 고리끼와 작품적 고리끼의 대조」	수필	×	
44	「인신 교주(人神敎主)」	희곡	「인신교주」	희곡
45	「작가에게 방향을 지시하라」	수필	「작가에게 방향을 지시하라」	수필
46	「잡감 수제(雜感數題)」	수필	×	
47	「적막」	단편소설		
48	「제지 공장촌」	단편소설	「제지공장촌」	단편소설
49	「조선은 말의 처녀지」	수필	×	
50	「쥐 이야기」	단편소설	「쥐이야기」	단편소설
51	「쥐불(鼠火)」	중편소설	×	
52	「창작 방법 문제에 관하여」	평론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	평론
53	「창작의 리론과 실천」	평론		
54	「채색 무지개」	단편소설	×	
55	「추도회」	단편소설		
56	「추회」	수필		
57	×		「출가소년의 최초경난」	수필
58	「협천 해인사」	수필	×	
59	『고향』	장편소설	『고향』	장편소설
60	×		『봄』	장편소설
61			『인간수업』	장편소설

리기영의 작품은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단편소설 25편, 중편소설 1편, 장편소설 1편, 희곡 1편, 수필 20편, 평론 6편 등의, 총 54편이 실렸고,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20편, 장편소설 3편, 희곡 2편, 수필 9편, 평론 4편 등의, 총 38편이 수록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비교하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6편, 중편소설 1편, 수필 13편, 평론 2편 등의, 총 22편의 작품이 삭제됐고, 단편소설 2편, 장편소설 2편, 희곡 1편, 수필 2편 등의, 총 7편의 작품이 추가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 비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에는 선집 권수는 3배 늘었지만 리기영의 작품 수는 줄었는데, 몇 편의 작품을 추가하여 각 시기별로 다양하게 선별됐다. 이는 작가의 대표작 중심이 아니라 각 시기별 북조선식 대표작을 중심으로 재배치했음을 드러낸다.



<표 9> '현대조선문학선집' 수록 엄홍섭의 작품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1	「가책」	소설	「가책」	소설
2	「겨울 밤」	아동문학(동시)	「겨울밤」	아동문학
3	×		「계절의 감촉」	수필
4	「고양이 새끼」	아동문학(동화)	「고양이새끼」	아동문학(동화)/ 창작동화
5	「과세」	소설	×	
6	「그들의 간 곳」	소설		
7	「길」	소설	「길」	소설
8	「꿈과 현실」	소설	「꿈과 현실」	소설
9	×		「나그네」	시
10			「눈」	시
11			「뜰에 피는 꽃」	시
12			「명암보」	중편소설
13			「문단시감」	평론
14			「문예비평의 기본개념과 평자의 교양문제」	평론
15	「번견 탈출기」	소설	「번견탈출기」	소설
16	「산풍경」	소설	×	
17	「새벽 바다」	소설		
18	×		「성묘」	시
19	「승어」	소설	×	
20	「실명(失明)」	소설	「실명」	소설
21	「아버지 소식」	소설	×	
22	「안개 속의 춘삼이」	소설		
23	「유모」	소설		
24	×		「올해년의 창작결산 조선작가는 어디로?」	평론
25	「사랑 단지」	아동문학(동요)	×	
26	×		「정열기」	중편소설
27			「진달래」	수필
27			「진달래」	아동문학
28	「출범 전후」	소설	「출범전후」	소설
29	「함흥 풍물첩」	수필	「함흥풍물첩」	수필
30	「흘러 간 마을」	소설	「흘러 간 마을」	소설
31	「힉」	소설	×	

그리고 엄홍섭의 작품은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단편소설 16편, 아동문학 3편, 수필 1편 등의 작품이 총 20편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시 4편, 단편소설 7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3편(중복작품 1편 처리), 수필 3편, 평론 3편 등의 작품이 총 22편이 수록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비교하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7편, 아동문학 1편의 총 8편의 작품이 삭제됐고, 시 4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1편, 수필 2편, 평론 3편 등이 총 12편의 작품이 추가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 비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에는 선집 권수는 3배로 늘면서 엄홍섭의 작품 수도 늘었는데, 단편소설은

적 형상의 완벽성으로 혁명적 시가문학의 역사적 뿌리로, 고전적 본보기'가 된다고 재해석했다.<sup>28</sup>

이는 북조선의 정통성을 ‘만들어진 신화’일지라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 두고 있듯, 북조선 문학도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에서 혁명문학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는 ‘명작’의 의미를 재구성 또한 재창조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임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이 과거의 전통뿐만 아니라 재현되고 재경험되는 살아 숨쉬는 전통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호명된 ‘항일혁명문학’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원리는 무엇일까? ‘민족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부르주아문학’을 배치하고자 한 ‘주체문학론’의 자장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은 조선문학의 지형도를 재구성 또는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지형도는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이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이고 인민적 모든 우수한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유산이 도달할 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했다’<sup>29</sup>는 주체문학론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

줄인 반면 시, 아동문학, 중편소설, 수필, 평론 등의 여러 편의 작품을 추가하여 각 시기별로 다양하게 수록했다. 이에서도 작가의 대표작 중심이 아니라 각 시기별 북조선식 대표작을 중심으로 재배치했음을 또한 드러낸다.

<sup>25</sup> 1980년대 후반의 북조선문학예술 논의를 집적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는 “우리는 리광수의 소설과 최남선의 시도 문학사에서 응당한 수준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서의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 리광수가 초기에 쓴 장편소설이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1910년대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는것만큼 그의 초기작품의 긍정적측면을 문학사에서 취급하는것이 나쁘지 않다. 최남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가 초기에 우리 나라 민족시가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형식의 시를 창작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최남선의 시는 새로운 시대사조를 받아들여 사람의 눈을 튀워주고 새 시가형식을 개척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것만큼 그의 초기작품에 대하여 문학사에서 취급하는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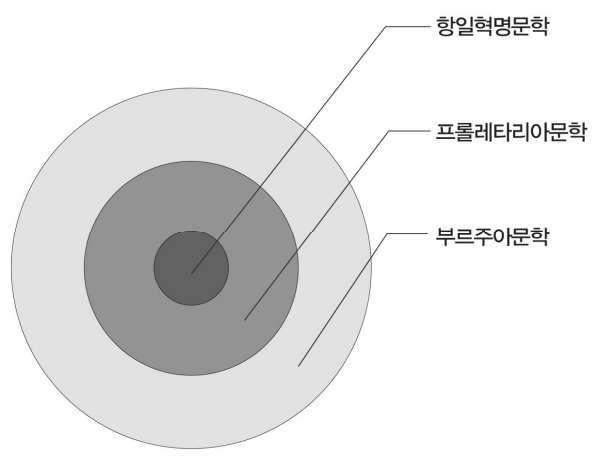
<sup>26</sup>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pp. 28~29.

<sup>27</sup> “조선 인민 혁명군,”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11)』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pp. 49~50.

<sup>28</sup> 리동수, “《혁명시가집》에 대하여,”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p. 10.

<sup>29</sup> 김정일, 『주체문학론』, p. 62.

<그림 1> '현대조선문학선집'의 원리



이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말해진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근접성의 원리를 따른 동심원 구조(항일혁명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부르주아문학)를 가진 기획이다. 또한 이 선집은 역사와 문학의 상동성을 드러낸 강력한 증표이다. 이는 북조선의 역사와 문학이 빚어낸 강력한 정치적 욕망 또는 열망을 표출한 증좌이다. 따라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이 주체문예론의 관점에서, 각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조선문학을 재배치한 문화정치적 기획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기획은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재현되고 재경험되는 살아 숨쉬는 전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Ⅲ. '고급문화상품'과 '정치선전물': 남북의 정전집, 문화정치적 기획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각 시기별 조선문학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재해석된, 또는 조선문학을 새롭게 재배치한 정전집이었다. 즉, 이 선집은 '계몽기'에서 해방 후까지 각 장르를 중심으로, 작가 선집도 포함하여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린 문화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그러면 남한에서 출판된 대표 '한국문학전집'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해방전편'에 해당하는 선집에서는 어떤 작가(소설가)를 선별하고 어떤 작가(소설가)를 배제했을까?<sup>30</sup>

그러면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과 남한의 『한국문학전집(1~44)』(2004~2015), 『20세기 한국소설(1~50)』(2005)에서 공통적으로 호명된 소설가는 누구일까? 이는 강경애, 김동리, 김동인, 김유정, 김정한, 라도향(나도향), 렬상섭(염상섭), 리광수(이광수), 리기영(이기영), 리무영(이무명), 리효석(이효석), 박태원, 전영택, 주요섭, 채만식, 최명익, 최서해, 한설야, 현진건 등의, 총 '19명'의 소설가이다. 그런데 남북의 이 '선집'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남북문학사의 대표 작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호명하는 정전은 상당히 다르다.<sup>31</sup>

《만세전》의 주인공은 여기서 더 진전하지 못하였다. (……) 이것은 3.1운동 직전 반일기세가 앙양되던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전형적인 형상이다. (……) 그러나 이 작품은 다른 한측면에서 1919년이전의 사회현실을 인테리의 시점에서 형상적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렬상섭의 초기작품으로 세상에 자연주의적소설로 알려지고있다. (……)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이와 같이 사회적비판이 예리하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대신에 불안과 고독감을 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렬상섭의 자연주의적인 창작관과 관련되는것이였다. / 렬상섭은 (……) 여전히 자연주의적 작가로 남아있었고 소시민적인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sup>32</sup>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자로 평가받고 있는 황보 염상섭의 작품 생애는 40여 년을 헤아린다. (……) 초기 작품에서 그는 식민지적 조건이 지식인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부하(負荷)의 실상을 그려내는데 집중하는데,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표본실의 청개구리」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암야」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공통된 일종의 허무의식과 울분이다.<sup>33</sup>

황보 염상섭은 초창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다.

<sup>30</sup> 북조선의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전체 작가 '614명', 전체 작품 '3834편' 중에서, 강경애부터 홍구까지의 소설가 '99명', 소설 335편(소설 329편 + 작가미상 6편)을 재배치했는데, 작가 미상의 '계몽기' 소설 6편(「금의 쟁성」, 「만인산」, 「세검정」, 「수일룡」, 「천중가절」, 「홍도화」)도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현재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문학과지성사'의 선집과 '창작과비평사'의 선집은 어떠할까? '개화·계몽시대'부터 1950년대 이후까지의 '문학과지성사'판 『한국문학전집(1~44)』(2004~2015)은 전체 작가 '35명', 전체 작품 '402편'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화·계몽시대'~1940년대 전반기는 강경애부터 황순원까지 소설가 총 '29명', 소설 총 '332편'을 선별하고 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창작과비평사'판 『20세기 한국소설(1~50)』(2005)은 전체 작가 '204명', 전체 작품 '374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1910년대~1940년대 전반기는 강경애부터 황순원까지 소설가 총 '44명', 소설 총 '103편'을 선별하고 있다.

<표 10> 남북의 대표 정전집 '현대문학전집'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53)』, 『한국문학전집(1~44)』, 『20세기 한국소설(1~12)』

작가	현대조선 문학선집	한국 문학전집	20세기 한국소설	작가	현대조선 문학선집	한국 문학전집	20세기 한국소설
강경애	○	○	○	걱정없을이	○		
계용목	○		○	구연학	○		
김교제	○			김남천		○	○
김동리	○	○	○	김동인	○	○	○
김말봉	○			김명순	○		
김사랑	○		○	김소엽	○		
김승구	○			김영걸	○		
김영석	○			김영팔	○		
김우진	○			김운정	○		
김유정	○	○	○	김정한	○	○	○
김창걸	○			나혜석			○
라도향	라도향	나도향	나도향	량건식	량건식		양건식
렴상섭	렴상섭	염상섭	염상섭	류완희	○		
류종석	○			리광수	리광수	이광수	이광수
리근영	○			리기영	리기영	이기영	이기영
리동규	○			리명식	○		
리무영	리무영	이무영	이무영	리복명	리복명		이복명
리상춘	○			리상협	○		
리선섭	○			리익상	리익상		이익상
리인직	리인직	이인직		리재환	○		
리중명	○			리주홍	○		
리태준		이태준	이태준	리해조	리해조	이해조	
리효석	리효석	이효석	이효석	박길수	○		
박승극	○			박영준	박영준(박영춘)		○
박이양	○			박종화	○		○
박태원	○	○	○	박화성	○		○
반 아				방인근	○		
배달자	○			백락천인	○		
백신애	○		○	八 학생	○		
석인해	○			송순일	○		
송 영	○		○	신채호	○		○
심규섭	○			심 훈	○	○	
안국선	○	○		안수길			○
약 월	○			엄홍섭	○		
유진오	○		○	유행림			○
윤기정	○			윤세중	○		
이 상		○	○	임순득	○		
임영빈	○			장택조	○		
장일익	○			전무길	○		
전영택	○	○	○	전장춘	○		
정비석			○	조명희	○		○
조벽암	○			주락양	○		
주요섭	○	○	○	지봉문	○		
차자명	○			채만식	○	○	○
최득건	○			최명익	○	○	○
최서해	○	○	○	최승일	○		
최연택	○			최인준	○		

(……) 주지하는 것처럼 「만세전」은 식민지 시대 염상섭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가 도달한 이런 인식은, 그 심리적인 자성(自省)의 깊이와 근대적인 개인으로 홀로 서고자 하는 결연함에서 근대소설의 한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또한 남북의 해석이나 평가에서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나 「만세전」의 경우, 남한 ‘전집’에서는 “식민지 조건이 지식인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부하(負荷)의 실상”을 그린 작품(「표본실의 청개구리」)이나 “식민지 시대 염상섭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소설의 기념비적 작품”(「만세전」) 등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조선 ‘선집’에서는 “자연주의 적소설”(「표본실의 청개구리」)이나 “1919년이전의 사회현실을 인테리의 시점에서 형상”한 소설(「만세전」) 등으로 두 작품을 거론한다. 또한 남한의 “초창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북조선에서는 염상섭을 “자연주의적인 작가”나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로 평가절하된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가 서로 다른 방식의 해석을 낳은 것이다.<sup>35</sup>

최연택	○			최인준	○		
최정희	○		○	최찬식	○	○	
최태웅	○			추적양	○		
한설야	○	○	○	한인택	○		
함대훈	○			허 준		○	○
현경준	○		○	현 덕	○		
현상윤	○		○	현진건	○	○	○
홍 구	○			황순원		○	○
작가미상	○			총 108명 + 작가미상			

<sup>31</sup> 예를 들어 남한의 ‘전집’에서 식민지 대표 작가로 호출된 ‘염상섭’의 경우, 북조선 선집에서는 「만세전」,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의 단 2편만이 호명되지만, 남한 선집에서는 「E선생」, 「두 출발」, 「두 파산」, 「만세전」, 「미해결」, 「숙박기」, 「암야」, 「양과자갑」, 「얼룩진 시대 풍경」, 「운전기」, 「전화」, 「절곡」, 「제야」, 「표본실의 청개구리」, 「해바라기」, 「해방의 아들」, 「삼대」 등의, 총 ‘17편’의 소설들이 선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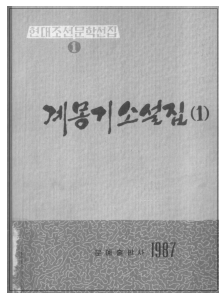
<sup>32</sup> 박춘명, “해제,” 주요섭·전영택·계용묵·김동인, 『인력거군(소설집)』(현대조선문학선집(16))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pp. 7~9.

<sup>33</sup> 김경수, “염상섭 단편소설의 전개 과정(작품 해설),” 김경수 편, 『두 파산(염상섭 단편선)』(한국문학전집(22))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pp. 454~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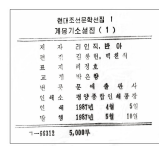
<sup>34</sup> 김경수, “식민지 현실의 발견과 그 소설화 - 염상섭의 초기 중편소설에 대하여(작품 해설),” 김경수 편, 『만세전(염상섭 중편선)』(한국문학전집(09))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pp. 468~474.

<sup>35</sup> 김현양은 북조선이 ‘민족’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문학사’를 전개했다면, 남한은 그것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북조선은 ‘우리문학사’ 내부에 ‘민족’의 가치를 더욱 중심화했을 반면, 남한은 ‘민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했다고 한다. 북조선의 문학사에서 ‘민족’의 가치를 절대화, 중심화하고자 하는 서술 방향은 ‘주체 사회주의’를 보위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있

그렇다면 남북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선집’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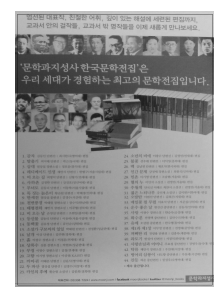
『계몽기소설집(1)』 표지



『계몽기소설집(1)』 관련지



『20세기 한국소설』 광고



『한국문학전집』 광고

북조선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남한 독자들은 ‘역시 가난한 나라이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즉, 이는 북조선 책의 ‘단순한’ 디자인이나 ‘나쁜’ 종이질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출판 상황을 거론한다는 말이다.<sup>36</sup> 남한 책과 비교할 때, 북조선의 열악한 출판 사정 등은 일정 부분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책을 바라보는 타자의 인식 태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일단, 북조선의 서적은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에서 보듯, 특히 이는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가격표(값)’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남과 북의 ‘현대문학선집’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표(값)’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의 ‘현대문학전집’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상품’인 반면, 북조선의 ‘현대문학선집’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당 문헌’이기에 그러하다.<sup>37</sup>

며 탈민족의 요구에 긴박되어 있는데,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세계화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상대화의 방향이었다. 이런 체제와 현실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오히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었다고 진단한다. 김현양, “북한의 ‘우리문학사’ 서술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소 남북한문화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4), pp. 36~37.

<sup>36</sup> 북조선의 ‘문학예술출판사’와 ‘평양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의 성격은 다르다. 즉, ‘문학예술출판사’의 책이 ‘국내용’이라면, ‘평양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은 ‘국외용’이다. 문학예술출판사의 책보다 평양출판사의 책은 상대적으로 표지가 화려하고 종이질이 좋은 편이고, 내용도 국외 선전적 성격이 더 강하다.

<sup>37</sup> 북조선 문학은 북조선의 정치 사회 체제에서 창작된 문학이며, 공식적인 사회주의 문학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급에 종사하는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 레닌은 『당조직과 당문헌』에서 문학을 포함한 당 문헌은 “일반 프롤레타리아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전체 로동 계급의 전체 자각적인 전위대에 의하여 운전되는 한 개의 유일하고 거대한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계의 ‘작은 바퀴와 나사못’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V. I. Lenin, “당 조직과 당 출판물,” 『문학에 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3;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 연

또한, 만약 북조선이 ‘표어’의 국가라면 아마도 남한은 ‘광고’의 나라일 것이다. 남한의 대표 ‘한국문학전집’은 “20세기 한국소설의 정화(精華)의 모음”,<sup>38</sup> 또는 “대표적인 한국문학전집”, “우리 문학의 정보 전집”<sup>39</sup> 등을 표방한다. 이 ‘전집’은 ‘계몽주의’나 ‘교양주의’를 내재한 대표 계몽서나 교양서 역할을 자임한다. 그런데 “민족문학의 산실’ 창비가 야심차게 기획한 명작 선집”이나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 등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광고는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창비’나 ‘문지’의 권력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명작 선집”, “독서력과 논술력의 첫걸음은 소설 읽기에서!” 등이나 “엄선된 대표작, 친절한 어휘, 깊이있는 해설에 세련된 편집까지, 교과서 안의 걸작들, 교과서 밖 명작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보세요” 등의 ‘화려한 광고’에서 보듯, 이 전집들은 청소년을 위한 ‘수능’이나 ‘논술’ 시장을 겨냥한 ‘상품’임을 숨기지도 않고 표나게 드러낸다.<sup>40</sup>

이러하듯, 자본주의 체제의 ‘고급문화상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sup>41</sup> 또

구』(서울: 역락, 2004), p. 226.

<sup>38</sup> 최원식, “‘20세기 한국소설’을 펴내며(간행사),” 최원식, 임규찬, 진정석, 백지연(편), 『신채호·이광수·현상윤·양진식·나혜석·김동인』(20세기 한국소설 1) (서울: 창비, 2005), p. 7.

<sup>39</sup> (주)문화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을 펴내며(기획의 말),” 최시한 편, 『감자(김동인 단편선)』(한국문학전집01) (서울: 문화과지성사, 2004), p. 454.

<sup>40</sup> “한국소설 100년을 정리한다”, “한국소설 100년을 총결산한다”, “‘민족문학의 산실’ 창비가 야심차게 기획한 명작 선집”,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이나 “한국 문학의 영원한 고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문화과지성사가 만들면 ‘한국문학전집’도 다릅니다!”, “문화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입니다” 등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광고는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창비’나 ‘문지’의 권력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명작 선집”, “독서력과 논술력의 첫걸음은 소설 읽기에서!”, “교사와 연구자 70여 명이 신세대 독자를 위한 감상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의 편집, 중고생들이 작심하고 독파해볼 만하다” 등이나 “현대식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동시대의 살아 숨쉬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휴대 간편한 판형에, 한국 대표 사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세련된 표지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엄선된 대표작, 친절한 어휘, 깊이있는 해설에 세련된 편집까지, 교과서 안의 걸작들, 교과서 밖 명작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보세요” 등의 ‘화려한 광고’에서 보듯, 중고생들을 위한 ‘수능’이나 ‘논술’ 시장을 겨냥한 ‘상품’임을 표명한다. “한국소설 100년을 총결산한다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29호 (2005), 쪽수 없음; “‘한국소설 100년을 정리한다’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0호 (2005), 쪽수 없음;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완간(광고),” 『창작과 비평』, 제133호 (2006), 쪽수 없음;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 창비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4호 (2006), 쪽수 없음; “문화과지성사가 만들면 ‘한국문학전집’도 다릅니다!(광고),” 『문화과 사회』, 제69호 (2005), 쪽수 없음; “한국 문학의 영원한 고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0호 (2005), 쪽수 없음; “‘문화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입니다.(광고),” 『문화과 사회』, 제114호 (2016), 쪽수 없음.

<sup>41</sup> 박해현, “어름방학! 책아~ 놀자 - 문학읽으면 논술이 보여요 범우·文知·창비社 명작선집 펴내,” 『조선일보』, 2005년 7월 15일; 문갑식, “全集, 30년만의 2차대전 일어난 이유는,” 『조선일보』, 2010년 4월 3일.



한, 이 ‘전집’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의 ‘뒤집힌 경제의 논리’<sup>42</sup>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남한 ‘한국문학전집’의 발간이 정전화의 주된 기제이며, 대중적 문학제도임을 말해주기도 한다.<sup>43</sup> 남한의 정전집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하의 고급문화상품이라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는 북조선의 정전집이 정치선전물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말이다.

#### IV. 결론

이 글을 읽고 나를 “친북파”로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친남”할 일도 “친북”할 일도 내 평생에 없다고 본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중들의 행복일 뿐이다. 나는 남한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편협한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비판적이듯, 어떤 면에서는 18~19세기의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소중화론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지나친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도 비판적이다. 그 어떤 편협함도 평화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필히 “나”의 주관성을 넘어 “나”와 “타자”를 아우르고 결국 만나게 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를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기처럼 익숙해진 미국 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북한과 우리를 평등하게 관찰해야 평화를 만들기에 훨씬 더 적합한 견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과연 한국에서 미제국을 탈중심화시켜 세상을 보는 것은 오늘날 어느 정도 보편적인가? 한국의 주류는 북한 숙청의 잔혹성에 비판을 퍼붓지만,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빈라덴과 그 가솔을 죽인 미군 부대가 김정은까지 죽이겠다는 말에 아무 위화감도 느끼지 않는다. “세계의 중심 제국”의 폭력은 우리에게 “불륜”이 아닌 “로맨스”일 뿐인데, 과연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반도의 중생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sup>44</sup>

북조선은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는 북조선이 ‘비이성적 국가’나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고 상상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도 수수께끼 같은 나라도 아니다.<sup>45</sup> 박노자의 지적처럼, “나”의 주관성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sup>42</sup> 부르디외가 말하는 문화장의 세계는 ‘뒤집혀진 경제세계’로서, 여기서 즉각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치명적이 될 것이고, 또 이 속에서는 유용성, 가득성, 효율성, 상호성, 종속 등의 원칙들이 무상성, 초연함, 자율성, 그리고 자유로 뒤집힌다. Pierre Marc de Biasi, “미학: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전투들,” P.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서울: 동문선, 1999), p. 492.

<sup>43</sup>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제37호 (2008), p. 120;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1),” pp. 133~135.

<sup>44</sup> “북한의 눈으로 남한을 한번 보자!,” 『한겨레』, 2017년 3월 21일.

<sup>45</sup> A. Lankov, 『리얼 노스 코리아』, p. 13;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p. 9.

아우르고 결국 만나게 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러하듯, 북조선 연구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객관적 실물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 정전 연구도 북조선 문학의 실상을, '현대조선문학선집'과 같은 객관적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힘 있게 떠밀어 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sup>46</sup>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조선 사람들은 일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저주하면서 놈들의 멸망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반일투쟁을 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조선인민들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을 박차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기차게 벌렸다. (……)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작가들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양양되는 노동자, 농민들의 계급적인 투쟁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였다.<sup>47</sup>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인식교양적 가치를 강조한 인민 '교양서' 또는 인민을 호명하고 인민을 기획하려는 '계몽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1930년대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김일성의 담화를 인용하여 논증하는, '김일성 교시'를 절대화하는 방법이나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서 1930년대 진보적 문학을 설명하는 방식 등은 남한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김일성이 친히 창작했다고 말해진 혁명시가들이나 '혁명적 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평가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나 북조선식의 역사가 침투한 '혁명시가집' 등에서 보듯,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은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한 '정치선전물'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북조선의 역사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국가정통성이 재구성되듯, 조선문학의 역사도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

<sup>46</sup>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p. 7.

<sup>47</sup> 은종섭, "1930년대 진보적단편소설에 대하여," 엄홍섭 외, 『출범전후』(현대조선문학선집(34))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pp. 2~3.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훈 외.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 김경수 편. 『두 파산』.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 \_\_\_\_\_. 『만세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남북한의 비평 연구』. 서울: 역락, 2004.
- \_\_\_\_\_.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담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 리기영 외.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 리인직 외. 『계몽기소설집(1)』. 평양: 문예출판사, 1987.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4.
-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2012.
- 엄홍섭 외. 『출범전후』.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 이상숙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3.
- 주요섭·전영택·계용묵·김동인. 『인력거군』.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채만식. 『천하태평춘』.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 최시한 편. 『감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최원식 외 편. 『신채호·이광수·현상윤·양건식·나혜석·김동인』. 서울: 창비, 2005.
-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11)』.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 Bourdieu, P..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서울: 동문선, 1999.
- Haruo Shirane·鈴木登美.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서울: 소명출판, 2002.
- Hughes, T..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서울: 소명출판, 2013.
- Lankov, A.. 김수빈 역. 『리얼 노스 코리아』. 서울: 개마고원, 2013.
- Lenin, V. I.. 『문학에 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 Lentricchia, F., McLaughlin, T. 편. 정정호 외 역.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서울: 한신문화사, 1994.

## 2. 논문

-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반교어문연구』. 제41집, 2015.
- \_\_\_\_\_. “북조선 소설 연구를 위한 제언.” 『돈암어문학』. 제26집, 2013.
- \_\_\_\_\_.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통일인문학』. 제67집, 2016.
-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2007.
-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현대소설연구』. 제37호, 2008.
- 최진이. “작가와 조선작가동맹.” 『임진강』. 제9호, 2010년 가을호.
-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한길문학』. 제2호, 1990년 6월호.

## 3. 기타자료

- 『문학과 사회』.
- 『문학신문』.
- 『조선일보』.
- 『창작과 비평』.
- 『한겨레』.

<부록-1>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리인직, 반아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 계몽기소설집(1) 리인직, 반아	문예출판사	1987. 5. 10.
	『현대조선문학선집(2)』 계몽기소설집(2) 리해조		
구연학, 안국선, 김교제, 리상협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 계몽기소설집(3) 구연학, 김교제, 리상협, 안국선, 작가미상	문예출판사	1987. 12. 30.
	『현대조선문학선집(4)』 계몽기소설집(4) 최찬식, 작가미상		
최찬식 외 3명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5)』 계몽기소설집(5) 김우진, 박이양, 조일재, 최연택, 작가미상	문예출판사	1988. 7. 10.
김우진, 박이양, 최연택, 조일재 외 2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6)』 계몽기시가지집 김무산초인, 권은상, 김교익, 김인식, 김철영, 남 강생, 동초생, 리상준, 리중원, 리필균, 박기림, 북악산인, 사몽, 서탑황생, 성암생, 소석생, 숙월 생, 운림생, 읍화맹, 일몽, 자하산인, 전경택, 최 남선(공륙, 공륙식), 최명한, 최영구, 춘사생, 토 운, 편운생, 홍태양, 작자미상	문예출판사	1990. 11. 10.
신채호, 량건식, 리상춘 외 10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7)』 단편소설집 슬픈 모순 걱정없을이, 김명순, 김영걸, 량건식, 류종석, 리 상춘, 배달자, 백락천인, 八중생, 신채호, 전장춘, 주락양, 현상윤	문예출판사	1989. 11. 10.
	『현대조선문학선집(8)』 장편소설 <개척자> 리광수		
리광수(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9)』 단편소설집 행랑자식 라도향, 리익상, 현진건	문예출판사	1991. 1. 30.
현진건, 라도향, 리익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0)』 최서해단편소설집 탈출기 최서해	문예출판사	1990. 9. 20.
최서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1)』 단편소설집 락동강 류완희, 박길수, 송순일, 신채호, 임영빈, 조명희, 최승일	문예출판사	1991. 5. 30.
조명희 외 6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2)』 단편소설집 석공조합대표 김영팔, 송영, 윤기정	문예출판사	1991. 9. 10.
송영, 윤기정, 김영팔(저자)		문예출판사	1991. 8. 15.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3)』 1920년대시선(1) 강영균, 권연기, 권파, 김동명, 김동환, 김선량, 김형원, 로초생, 류도순, 리광수, 리영근, 리일, 리장희, 백기만, 백원, 변영노, 변종호, 신채호, 심흥, 오상순, 율양, 율파생, 정경목, 조동건, 주 요한, 한날, 한룡운, 한별, 한사배, 현성	문예출판사	1991. 12. 30.
	『현대조선문학선집(14)』 1920년대시선(2) 김명순, 김소월, 김억, 로자영, 홍사용	문예출판사	1992. 5. 30.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5)』 1920년대시선(3) 강병주, 광로연, 권구현, 김계담, 김량운, 김삼술, 김시훈, 김주원, 김창술, 김창주, 김해강, 남궁벽, 녀성, 녀심, 량우정, 량주동, 량우상, 류완희, 류 운향, 류재형, 류창선, 리병기, 리병운, 리상화, 리은상, 리호, 박세영, 박아지, 박운용, 박제찬, 박팔양, 백파, 변혁, 복주생, 손풍산, 송순일, 신 석정, 심훈, 안례부, 어적산인, 엄홍섭, 윤영희, 적포탄, 전맹, 정로풍, 정룡산, 정지용, 조명희, 조운, 진우촌, 최화숙, 포뢰, 포영생, 한도렬, 한 정동, 허수만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2. 12. 30.
	『현대조선문학선집(16)』 소설집 인력거군 계용목, 김동인, 김운정, 량상섭, 리명식, 리선섭, 리종명, 박종화, 전영택, 주요섭, 최득견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8. 4. 25.
김영팔 외 14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7)』 1920년대회곡선 김두용, 김수산, 김영팔, 김운정, 김정진, 도봉생, 류영, 소화, 유진오, 윤수봉, 임영빈, 조명희, 진 우촌, 채만식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5. 3. 5.
	『현대조선문학선집(18)』 1920년대 아동문학집(1) 강순도, 고장환, 고한승, 권환, 긴내, 김남주, 김 병호, 김상근, 김선익, 김영일, 김용희, 김창신, 김호영, 꽃동산, 남궁량, 남궁인, 남석중, 락량, 렴근수, 로해룡, 류금산, 류도순, 류재형, 류종원, 류지영, 리경로, 리고손, 리명식, 리성홍, 리용완, 리원수, 리정구, 리정호, 마춘서, 박기섭, 박길주, 박두언, 박범숙, 박세영, 박팔양, 방정환, 서덕출, 성경린, 성석훈, 송완순, 안준식, 영춘, 윤극영, 윤량모, 윤복진, 윤석중, 장선명, 장정심, 전광수, 정기주, 정상규, 정열모, 정인섭, 정지용, 정태이, 주강산, 초동, 초로, 최몽봉, 최서해, 최순애, 최 영기, 최점봉, 표월강, 한봉천, 한정동, 해달별, 홍란파, 홍종인, 황석원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3. 7. 30.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9)』 리기영단편소설집 오빠의 비밀편지 리기영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3. 5. 20.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0)』 1920년대 아동문학집(2)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4. 2. 20.
	강훈, 고한승, 권환, 김도인, 남궁량, 량고봉, 로 직이, 리강흠, 리명식, 리병화, 리상대, 리정호, 마니산인, 마해송, 맹주천, 문병찬, 민봉호, 박달 성, 박세영, 박정창, 방정환, 백신애, 송영, 연성 흠, 윤석중, 전영택, 최경화, 최병화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1)』 장편소설 고향 리기영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5. 11. 25.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2)』 1920년대 수필집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1. 8. 30.
	고성, 권덕규, 김남주, 김동환, 김석송, 김소저, 김영팔, 김을한, 돌이, 라도향, 로지영, 류도순, 류완희, 류춘섭, 리광수, 리기영, 리상화, 리익상, 리종정, 리향, 문일평, 박경식, 박찬희, 박팔양, 방인근, 방정환, 백기만, 비봉산인, 손진태, 송순 일, 신경순, 심훈, 엄홍섭, 윤극영, 윤기정, 장수 산인, 전당, 정규창, 조두성, 조명희, 주은섭, 진 학보, 최서해, 최의순, 현진건, 현철, 홍사용, 황 락진		
리효석 외 7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3)』 소설집 로명근해 리무영, 리종명, 리효석, 박승극, 방인근, 약월, 최독건, 추적양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0. 3. 25.
최치영, 박건천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24)』 혁명시가집 강반석, 김일성, 김정숙, 김형직, 항일무장투쟁 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항일혁명가요들, 항일혁 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기들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2. 6. 30.
한설야(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5)』 장편소설 황혼 한설야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9. 3. 20.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6)』 1930년대시선(1)	문학예술 출판사	2004. 3. 5.
	김달진, 김동석, 김봉인, 김상훈, 김진세, 김창술, 김해강, 류완희, 리병옥, 리상화, 리설주, 리은상, 리정구, 리흠, 림학수, 민병균, 박남수, 박두진, 박문서, 박산운, 박아지, 박종식, 박팔양, 서정주, 신진순, 오일도, 오장환, 윤태웅, 장만영, 정인보, 정지용, 정호승, 조남영, 조명희, 조운, 조지훈, 주수원, 천청송, 한룡운, 한죽송, 허리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7)』 1930년대시선(2)	문학예술 출판사	2004. 1. 5.
	강경애, 권환, 김광균, 김기림, 김대봉, 김람인, 김상용, 김영랑, 류창선, 류치환, 리대용, 리륙사, 리찬, 리희승, 박룡철, 박세영, 백석, 신석정, 양 운한, 윤근강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8)』 1930년대시선(3) 강의훈, 고두동, 고은, 고재홍, 권구현, 김광섭, 김광주, 김규은, 김단정, 김병호, 김상정, 김소엽, 김어수, 김용호, 김우철, 김인길, 김정거, 김정환, 김조규, 김종한, 김죽사, 김천규, 김태오, 남응순, 늘샘, 도진호, 량우정, 로상현, 로천명, 류성호, 류연옥, 류의탁, 류재성, 류재영, 리계원, 리고려, 리고산, 리동규, 리무극, 리서향, 리어수, 리용악, 리원우, 리은희, 리혜숙, 리혜영, 림린, 박계홍, 박로아, 박로춘, 박봉준, 박석정, 박영준, 박영호, 박인범, 박재륜, 방인희, 백철, 서창재, 석포영, 소인, 송순일, 송양파, 송완순, 송창일, 송용순, 송효단, 신석초, 안룡만, 안영균, 안희남, 염주용, 오시영, 윤동주, 윤적도, 임혜라, 전고한, 전무길, 전춘파, 정동, 정룡산, 정청산, 정태선, 조동진, 조령출, 조벽암, 조세림, 조연현, 조정현, 주영섭, 최련실, 편운, 피천득, 한적선, 한후구, 함효영, 허보, 황철업	문학예술 출판사	2004. 3. 30.
	『현대조선문학선집(29)』 장편소설 <봄> 리기영	문학예술 출판사	2006. 5. 15.
강경애(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0)』 장편소설 인간문제 강경애	문학예술중 합 출판사	1994. 6. 20.
	『현대조선문학선집(31)』 장편소설 상록수 심훈	문학예술 출판사	2004. 1. 15.
한설야(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2)』 장편소설 탐 한설야	문학예술 출판사	2005. 3. 10.
	『현대조선문학선집(33)』 소설집 철도교차점 김사량, 김유정, 리효석, 유진오, 전무길, 채만식, 최인준, 한설야, 현경준, 홍구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30.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4)』 소설집 출범전후 강경애, 김소엽, 리근영, 리재환, 리주홍, 박영춘, 엄홍섭, 윤세중, 임순득, 조벽암, 한인택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20.
	『현대조선문학선집(35)』 소설집 질소비료공장 김동리, 김승구, 김영석, 김정환, 리기영, 리동규, 리복명, 박승극, 박화성, 석인해, 심규섭, 장일익, 지봉문, 함대훈	문학예술 출판사	2003. 7. 5.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6)』 장편소설 <인간수업> 리기영	문학예술 출판사	2006. 6. 20.

<p>류희정(편찬)</p>	<p>『현대조선문학선집(37)』                  &lt;&lt;1930년대 수필집&gt;&gt;                  강경애, 김두헌, 김문집, 김석송, 김유정, 김자혜, 김한태, 김해강, 남궁만, 로자영, 리기영, 리륙사, 리무영, 리석훈, 리은상, 리적효, 리찬, 리흠, 림학수, 문일평, 민병휘, 민태원, 박세영, 박승국, 박영준, 박태원, 박화성, 백신애, 석인해, 송순일, 송영, 신립, 심훈, 안희남, 엄홍섭, 장덕조, 전영택, 정인택, 정지용, 조벽암, 주요섭, 채만식, 채선엽, 최정희, 한룡운, 한설야, 한효, 홍구, 홍란파, 홍종인</p>	<p>문학예술출판사</p>	<p>2006. 9. 25.</p>
<p>류희정(편찬)</p>	<p>『현대조선문학선집(38)』                  해방전평론집                  권환, 김두용, 김문집, 김수산, 김우철, 량명, 리기영, 리상화, 리성태, 리익상, 리정구, 리종기, 문일태, 박승국, 박영호, 소파(방정환), 송영, 신채호, 안함광, 엄홍섭, 윤근강, 윤기정, 임정재, 최서해, 한설야, 한식, 현진건</p>	<p>문학예술출판사</p>	<p>2009. 8. 15.</p>
<p>류희정(편찬)</p>	<p>『현대조선문학선집(39)』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1)                  김동길, 김복진, 김복원, 김상덕, 김영팔, 김우철, 김인식, 김중곤, 남궁만, 량가빈, 로량근, 리구조, 리동규, 리원우, 박세영, 박세철, 박아지, 손기문, 송영, 송창일, 안준식, 양재응, 엄홍섭, 임원호, 조재호, 주요한, 진장섭, 최병화, 최인화, 현덕, 현재덕, 홍구, 홍일오</p>	<p>문학예술출판사</p>	<p>2005. 4. 12.</p>
<p>류희정(편찬)</p>	<p>『현대조선문학선집(40)』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2)                  강로규, 강성범, 강소천, 강승한, 고장환, 공재명, 광로엽, 권오순, 권태용, 김광섭, 김규은, 김대봉, 김대창, 김락환, 김복원, 김성도, 김성복, 김영수, 김영일, 김영팔, 김우철, 김원룡, 김자겸, 김종기, 김종하, 김중곤, 김춘강, 김태오, 김한성, 남궁만, 남양초, 로상현, 로천명, 류재형, 리구월, 리동규, 리동우, 리룡섭, 리봉성, 리영무, 리원수, 리원우, 리은상, 리일래, 리정구, 리향파, 리현구, 림춘길, 마가산, 마하산, 목고경, 목일신, 민병균, 박경중, 박고경, 박로아, 박로춘, 박맹, 박명옥, 박병도, 박세영, 박수봉, 박아지, 박약서아, 박영순, 박영중, 박영하, 박을송, 박재관, 방용삼, 배선권, 변재연, 복원초인, 서덕출, 서정봉, 석전아, 송선일, 수봉, 수용, 신한경, 안룡만, 안병두, 안영수, 엄홍섭, 오영자, 유민, 윤근강, 윤극영, 윤동주, 윤복진, 윤석중, 윤태영, 임원호, 장세권, 장수철, 장인균, 전식, 전일순, 정대위, 정적아, 정청산, 정형원, 정홍필, 조종현, 주요한, 주향두, 차남성, 차칠선, 철엽, 최봉록, 최수복, 최순애, 최신구, 최옥란, 한백근, 한인수, 한정동, 한죽송, 허길옥, 허문일, 허삼봉, 홍구, 홍종린</p>	<p>문학예술출판사</p>	<p>2005. 6. 25.</p>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1)』 《1930년대회곡선》(1) 김송, 남궁만, 류지진, 박서민, 송영, 채만식	문학예술 출판사	2008. 4. 25.
	『현대조선문학선집(42)』 《1930년대회곡선》(2) 김진수, 리기영, 리서향, 함세덕	문학예술 출판사	2008. 5. 15.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3)』 소설집 꽃피었던 섬 김소엽, 리무영, 박태원, 박화성, 석인해, 유진오, 장덕조, 조벽암, 차자명, 최명익, 최태응, 한인택, 현경준, 현덕	문학예술 출판사	2009. 7. 30.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현진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5)』 장편소설 《무영탑》 현진건	문학예술 출판사	2007. 5. 15.
석선영(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46)』 김사량작품집 김사량	문학예술 출판사	2009. 3. 15.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7)』 《해방전녀류문학작품선》 강경애, 김말봉, 김오남, 김자혜, 로천명, 리선희, 리해월, 박화성, 백신애, 장덕조, 장정심, 주수원, 최정희, 해월, 홍순옥	문학예술 출판사	2011. 2. 10.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8)』 해방전동화집 고한승, 김명호, 김영환, 김흥련, 로량근, 류일천, 류지영, 리귀조, 리영철, 리정호, 림마리아, 마해 송, 맹주천, 박로춘, 박세혁, 박유중, 박인호, 방 정환, 손기문, 송기화, 아니산인, 엄홍섭, 연성흠, 전홍림, 정순철, 조풍연, 채만식, 청천강인, 최경 화, 최종범, 최청곡, 한충, 홍은성, 구전동화	문학예술 출판사	2010. 7. 30.
엄홍섭(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9)』 소설집 《정열기》 엄홍섭	문학예술 출판사	2010. 3. 15.
심훈(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50)』 장편소설 《영원의 미소》 심훈	문학예술 출판사	2010. 3. 10.
석선영, 류희정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51)』 소설집 《비오는 길》 박승극, 채만식, 최명익	문학예술 출판사	2010. 6. 5.
석선영, 류희정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52)』 소설집 《천하태평춘》 채만식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15.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53)』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 권환, 김동석, 김사량, 김소엽, 김영석, 김정한, 김창걸, 로자영, 리기영, 리무영, 리용약, 리찬, 박로갑, 엄홍섭, 율탄, 윤곤강, 정인택, 주 요한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25.

<부록-2>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수록 작가명

작가	수록 권수	작가	수록 권수	작가	수록 권수
강경애	(27), (30), (34), (37), (47)	강로규	(40)	강반석	(24)
강병주	(15)	강성범	(40)	강소천	(40)
강순도	(18)	강승한	(40)	강영균	(13)
강의훈	(28)	강 훈	(20)	걱정없을이	(7)
김무산초인	(6)	계용복	(16)	고두동	(28)
고 성	(22)	고 온	(28)	고장환	(18), (40)
고재홍	(28)	고한승	(18), (20), (48)	공재명	(40)
곽로열	(15)	곽로열	(40)	구연학	(3)
권구현	(15), (28)	권덕규	(22)	권연기	(13)
권오순	(40)	권은상	(6)	권태웅	(40)
권 파	(13)	권 환	(18), (20), (27), (38), (53)	긴 내	(18)
김계담	(15)	김광균	(27)	김광섭	(28), (40)
김광주	(28)	김교익	(6)	김교제	(3)
김규은	(28), (40)	김기림	(27)	김남주	(18), (22)
김단정	(28)	김달진	(26)	김대봉	(27), (40)
김대창	(40)	김도인	(20)	김동길	(39)
김동리	(35)	김동명	(13)	김동석	(26), (53)
김동인	(16)	김동환	(13), (22)	김두용	(17), (38)
김두현	(37)	김락환	(40)	김람인	(27)
김량운	(15)	김말봉	(47)	김명순	(7), (14)
김명호	(48)	김문집	(37), (38)	김병호	(18), (28)
김복진	(39)	김봉인	(26)	김복원	(39), (40)
김사랑	(33), (46), (53)	김삼술	(15)	김상근	(18)
김상덕	(39)	김상용	(27)	김상정	(28)
김상훈	(26)	김선량	(13)	김선익	(18)
김성도	(40)	김성복	(40)	김소엽	(28), (34), (43), (53)
김소월	(14)	김소저	(22)	김 송	(41)
김수산	(17), (38)	김승구	(35)	김시훈	(15)
김어수	(28)	김 역	(14)	김영걸	(7)
김영랑	(27)	김영석	(35), (53)	김영수	(40)
김영일	(18), (40)	김영팔	(12), (17), (22), (39), (40)	김영환	(48)
김오남	(47)	김용호	(28)	김용희	(18)
김우진	(5)	김우철	(28), (38), (39), (40)	김운정	(16), (17)
김원룡	(40)	김유정	(33), (37)	김을한	(22)
김인걸	(28)	김인식	(6), (39)	김일성	(24)
김자겸	(40)	김자혜	(37), (47)	김정거	(28)
김정숙	(24)	김정진	(17)	김정한	(35), (53)
김정환	(28)	김조규	(28)	김종기	(40)
김종하	(40)	김종한	(28)	김주원	(15)
김죽사	(28)	김중곤	(39), (40)	김진세	(26)
김진수	(42)	김창술	(15), (26)	김창걸	(53)
김창신	(18)	김창주	(15)	김천규	(28)
김철영	(6)	김춘강	(40)	김태오	(28), (40)
김한성	(40)	김한태	(37)	김해강	(15), (26), (37)

김형원	(13)	김형직	(24)	김호영	(18)
	김석송 (22), (37)				
김흥련	(48)	꽃동산	(18)	남강생	(6)
남궁랑	(18), (20)	남궁만	(37), (39), (40), (41)	남궁벽	(15)
남궁인	(18)	남석종	(18)	남양초	(40)
남응손	(28)	녀 성	(15)	녀 심	(15)
늘 샘	(28)	도봉생	(17)	도진호	(28)
돌 이	(22)	동초생	(6)	라도향	(9), (22)
락 랑	(18)	랑가빈	(39)	랑건식	(7)
랑고봉	(20)	랑 명	(38)	랑우정	(15), (28)
랑주동	(15)	렴근수	(18)	렴상섭	(16)
렴우상	(15)	로랑근	(39), (48)	로상현	(28), (40)
로자영	(14), (22), (37), (53)	로직이	(20)	로천명	(28), (40), (47)
로초생	(13)	로해룡	(18)	류금산	(18)
류도순	(13), (18), (22)	류성호	(28)	류연옥	(28)
류 영	(17)	류완희	(11), (15), (22), (26)	류운향	(15)
류의탁	(28)	류일천	(48)	류재성	(28)
류재영	(28)	류재형	(15), (18), (40)	류종석	(7)
류종원	(18)	류지영	(18), (48)	류창선	(15), (27)
류춘섭	(22)	류치진	(41)	류치환	(27)
리강흠	(20)	리경로	(18)	리계원	(28)
리고려	(28)	리고산	(28)	리고손	(18)
리광수	(8), (13), (22)	리구월	(40)	리구조	(39)
리귀조	(48)	리근영	(34)	리기영	(19), (21), (22), (29), (35), (36), (37), (38), (42), (53)
리대용	(27)	리동규	(28), (35), (39), (40)	리동우	(40)
리룡섭	(40)	리륙사	(27), (37)	리명식	(16), (18), (20)
리무극	(28)	리무영	(23), (37), (43), (53)	리병기	(15)
리병옥	(26)	리병윤	(15)	리병화	(20)
리봉성	(40)	리북명	(35)	리상대	(20)
리상준	(6)	리상춘	(7)	리상협	(3)
리상화	(15), (22), (26), (38)	리서향	(28), (42)	리석훈	(37)
리선섭	(16)	리선희	(47)	리설주	(26)
리성태	(38)	리성홍	(18)	리어수	(28)
리영근	(13)	리영무	(40)	리영철	(48)
리용악	(28), (53)	리용완	(18)	리원수	(18), (40)
리원우	(28), (39), (40)	리은상	(15), (26), (37), (40)	리은희	(28)
리익상	(22), (38), (9)	리인직	(1)	리 일	(13)

리일래	(40)	리장희	(13)	리재환	(34)
리적효	(37)	리정구	(18), (26), (38), (40)	리정호	(18), (20), (48)
리종기	(38)	리종명	(16), (23)	리종정	(22)
리주홍	(34)	리중원	(6)	리 찬	(27), (37), (53)
리필균	(6)	리해월	(47)	리해조	(2)
리 향	(22)	리향파	(40)	리헌구	(40)
리혜숙	(28)	리혜영	(28)	리 호	(15)
리효석	(23), (33)	리 흡	(26), (37)	리희승	(27)
림 린	(28)	림마리아	(48)	림춘길	(40)
림학수	(26), (37)	마가산	(40)	마니산인	(20)
마춘서	(18)	마하산	(40)	마해송	(20), (48)
맹주천	(20), (48)	목고경	(40)	목일신	(40)
문병찬	(20)	문원태	(38)	문일평	(22), (37)
민병균	(26), (40)	민병휘	(37)	민봉호	(20)
민태원	(37)	박경식	(22)	박경중	(40)
박계홍	(28)	박고경	(40)	박기렴	(6)
박기섭	(18)	박길수	(11)	박길주	(18)
박남수	(26)	박달성	(20)	박두언	(18)
박두진	(26)	박로갑	(53)	박로아	(28), (40)
박로춘	(28), (40), (48)	박룡철	(27)	박 명	(40)
박명옥	(40)	박문서	(26)	박범숙	(18)
박병도	(40)	박봉준	(28)	박산운	(26)
박서민	(41)	박석정	(28)	박세영	(15), (18), (20), (27), (37), (39), (40)
박세철	(39)	박세혁	(48)	박수봉	(40)
박승국	(37)	박승극	(23), (35), (38), (51)	박아지	(15), (26), (39), (40)
박약서아	(40)	박영순	(40)	박영중	(40)
박영준	(28), (37), (34) 박영춘 (34)	박영하	(40)	박영호	(28), (38)
박유중	(48)	박윤용	(15)	박을송	(40)
박이양	(5)	박인범	(28)	박인호	(48)
박재관	(40)	박재륜	(28)	박정창	(20)
박제찬	(15)	박종식	(26)	박중화	(16), (53) 월탄 (53)
박찬희	(22)	박태원	(37), (43)	박팔양	(15), (18), (22), (26)
박화성	(35), (37), (43), (47)	반 아	(1)	방응삼	(40)
방인근	(22), (23)	방인희	(28)	방정환	(18), (20), (22), (38), (48) 소 파 (방정환) (38)
배달자	(7)	배선권	(40)	백기만	(13), (22)
백락천인	(7)	백 석	(27)	백신애	(20), (37), (47)
백 원	(13)	백 철	(28)	백 파	(15)



정룡산	(15), (28)	정상규	(18)	정순철	(48)	
정열모	(18)	정인보	(26)	정인섭	(18)	
정인택	(37), (53)	정적아	(40)	정지용	(15), (18), (26), (37)	
정청산	(28), (40)	정태선	(28)	정태이	(18)	
정형원	(40)	정호승	(26)	정홍필	(40)	
조남영	(26)	조동건	(13)	조동진	(28)	
조두성	(22)	조명출	(28)	조명희	(11), (15), (17), (22), (26)	
조벽암	(28), (34), (37), (43)	조세림	(28)	조연현	(28)	
조 운	(15), (26)	조일재	(5)	조재호	(39)	
조정현	(28)	조종현	(40)	조지훈	(26)	
조풍연	(48)	주강산	(18)	주락양	(7)	
주수원	(26), (47)	주영섭	(28)	주요섭	(16), (37)	
주요한	(13), (39), (40), (53)	주은섭	(22)	주향두	(40)	
지봉문	(35)	진우촌	(15), (17)	진장섭	(39)	
진학보	(22)	차남성	(40)	차자명	(43)	
차철선	(40)	채만식	(17), (33), (37), (41), (48), (51), (52)	채선엽	(37)	
천청송	(26)	철 엮	(40)	청천강인	(48)	
초 동	(18)	초 로	(18)	최경화	(20), (48)	
최남선	(6)	최득견	(16), (23)	최련실	(28)	
	공 룩					(6)
	공륙식					(6)
최룡봉	(18)	최명익	(43), (51)	최병한	(6)	
최병화	(20), (39)	최봉록	(40)	최서해	(10), (18), (22), (38)	
최수복	(40)	최순애	(18), (40)	최승일	(11)	
최신구	(40)	최연택	(5)	최영구	(6)	
최영기	(18)	최옥란	(40)	최의순	(22)	
최인준	(33)	최인화	(39)	최집봉	(18)	
최정희	(37), (47)	최종범	(48)	최찬식	(4)	
최청곡	(48)	최태응	(43)	최희숙	(15)	
추적양	(23)	춘사생	(6)	토 운	(6)	
편 운	(28)	편운생	(6)	포 례	(15)	
포영생	(15)	표월강	(18)	피천득	(28)	
한 날	(13)	한도렬	(15)	한룡운	(13), (26), (37)	
한백곤	(40)	한 별	(13)	한봉천	(18)	
한사배	(13)	한설야	(25), (32), (33), (37), (38)	한 식	(38)	
한인숙	(40)	한인택	(34), (43)	한적선	(28)	
한정동	(15), (18), (40)	한죽송	(26), (40)	한 충	(48)	
한 효	(37)	한혹구	(28)	함대훈	(35)	
함세덕	(42)	함효영	(28)	해달별	(18)	
허길옥	(40)	허리복	(26)	허문일	(40)	



허 보	(28)	허삼봉	(40)	허수만	(15)
현경준	(33), (43)	현 덕	(39), (43)	현상윤	(7)
현 성	(13)	현재덕	(39)	현진건	(9), (22), (38), (45)
현 철	(22)	혜 원	(47)	홍 구	(33), (37), (39), (40)
홍란파	(18), (37)	홍사용	(14), (22)	홍순옥	(47)
홍은성	(48)	홍일오	(39)	홍종린	(40)
홍종인	(18), (37)	홍태양	(6)	황락진	(22)
황석원	(18)	황철업	(28)	총614명	
<b>기타</b>	<b>수록 권수</b>	<b>기타</b>	<b>수록 권수</b>	<b>기타</b>	<b>수록 권수</b>
작가미상	(3), (4), (5)	작자미상	(6)	구전동화	(48)
항일무장 투쟁을 반영한 인민 가요들	(24)	항일 혁명 가요들	(24)	항일혁명 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24)
미확인	(44)			×	

**An Introduction to A Study on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A Collection of North Josun Canons:  
On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1 ~53)’  
(1987 ~2011)**

*Won-Jin Nam*

We may also imagine that North Josun is ‘the most isolated and mysterious state’ or ‘an irrational state’. But it is neither an irrational state nor puzzling existence, which is also applied to its past. Unlike our imagination,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we need to study North Josun literature not with the ‘image’ distributed by the media and made from common sense but with objective ‘object’.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1-53)』 was reconstructed mainly by Giyoung Lee, an author of ‘proletarian literature’, and others, but it also restored many authors who had been classified as authors of ‘bourgeois literature’ like Gwangsoo Lee and others. When this anthology was re-created and monopolized, poems, fictions, dramas, essays, criticisms and so on were not only rearranged from ‘literature of enlightenment’ to ‘literature in the early 1940’s’ but also the ‘revolutionary songs’ called the ‘creations’ by Ilsung Gim’ and others were included. The anthology tried to reconstruct or re-create a topographical map of Josun literature in the magnetic field of ‘subjective literature theory’, which tried to put together not only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but also ‘bourgeois literature’ and ‘proletarian literature’ from the viewpoint of ‘ethnic cultural heritage’. That is, it is a project with the concentric structure with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which was said to be Ilsung Gim’s ‘creation’, as a nucleus. Theref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from the viewpoint of subjective art and literature theory it is cultural political planning which has rearranged each work by scouting for a new meaning in it.

Just as ‘A Complete Collection of Modern Literature’ of South Korea is ‘a product of high culture’ under a capitalistic system,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of North Josun is ‘a political advertisement’ under a socialistic system. In fact, collections of canons were reconstruct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a capitalistic or socialistic system, or such desire was revealed. In the present reality, a study on North Josun literature may also enable me to find a new directionality or possibility beyond others’ eyes of South and North literature. Of course, a logic of self-relativization is necessary where the subject and others are put together and met beyond the subject’s subjectivity.

**Key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Canon, Canonization, North Josun Style Block Book, Cultural and Political Project